

친노·비노 동시 출마...누굴 밀까 복잡 미묘

〈우윤근·이목희〉 〈주승용·이종걸〉

새정치 원내대표 경선, 광주·전남 국회의원 표심 향배 주목

오는 9일 치러지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표심 향배가 주목받고 있다.

중도 성향이 짙은 지역 의원들의 선택이 친노(친노무현)와 비노(비노무현)의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주승용 의원과 우윤근 의원이 각기 비노와 친노 주자로 동시에 출마하면서 지역 정가에도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일단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비노 주자인 주승용, 이종걸 의원 지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 가운데 범친노인 정세균 의원 계파로 분류되는 강기정, 김성곤 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도 및 비노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박지원 의원은 7일 트위터 글을 통해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 “비노계 한 후보로 추

대를 중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비대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한 세력으론 더 기울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한 세력이 독식하면 집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중도 성향의 민집모(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 소속 김동철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내 분열과 비민주성, 불공정성을 극복하고 선명한 원내투쟁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집단 지성으로 추대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패권주의가 당의 근본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계파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원내대표에 뜻을 두는 것은 우리 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친노 주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민집모는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도 원내대표 합의 추대론을 내세우며 경선 불출마 카드까지 던졌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계파적 승패로 해석되거나 질의와 자괴감으로 마감되는 경선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9일 오전까지 후보자간 만남을 통해 경선 없는 후보 단일화를 이뤄 당내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친노(친노무현)와 비노(비노무현)의 숫자 세는 원내대표 선거가 되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중도·비노 진영의 이 같은 원내대표 추대론은 사실상 친노 진영에 양보를 압박하는 행보로 읽히고 있다. 당의 미래를 위해서 친노 진영이 원내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메시지다.

하지만, 범친노 진영에서는 원내대표 합의 추대론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에 따라, 합의 추대론이 불발되고 계파 정쟁 형식의 경선이 치러져서 친노 진영의 원내대표가 선출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 한 번 깊은 내홍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행위 국감 국회가 안전행정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상임위별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국정감사에 들어간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 첫날 세월호·증세·병영문화 혁신 등 따져

국회는 7일 정부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12개 상임위 소관 부처 및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박근혜정부 들어 두 번째인 이번 국감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세월호 문제와 증세 논란, 국가 안보와 남북 관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아직 본격적인 총론은 일어나지 않은 채 서로 접단 교환하는 탐색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야는 정부위와 안행위에서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를 각각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과 후속 조치의 적절성을 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정부위 국감에서

지난 6월 세월호 수습 관련 관계 차관 회의 자료를 근거로 “감사원은 안행부 등 10개 부처 소관 64개 위험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점검 누락 ▲하위 점검 ▲비전문가에 의한 형식 점검 등 66건을 지적했다”며 “정부가 자체·합동으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벌여 각각 4만4353건(자체점검), 4712건(합동점검)을 지적·조치했지만 아직도 형식적 점검 관행은 없애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행위 국감에서는 정중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 정상화 이전에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가 잇따르자 “발언의 진의가 왜곡돼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위

에 손상이 갔다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노위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여야가 중인 채택 문제를 놓고 대립하면서 오후 늦게까지 파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개회가 선언되자마자 잇따라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자신들이 요구한 현대차, 삼성 등 기업 총수들의 국감 증인체제가 불발된 것을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기업인 증인 신청을 구대라고 비판하며 맞박았다.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병영문화 혁신과 군 인권개선 요구가 쏟아졌다.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은 “국방부 내에 인권국을 설치하고 현재 법무관 위주로 운영 중인 인권담당관부터 외부에서 개방적으로 총원해 국방부 내 인권침해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감 브리핑

박지원 “법원장급 58%가 영남출신...지역 편중 심각”

법관 인사에서 영남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법관의 지역 편중 현상을 방지하는 것은 사회통합은 물론 법원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 및 고법원장 24명 중 58%인 14명이, 올해는 28명 중 57%인 16명이 영남 출신으로 집계됐다.

올해 기준 전체 법관 중 영남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33.4%로 대전·충청(8.5%), 호남(19%) 등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간부급 법관이 향후 대법관 및 대법원 주무 보직 후보자라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의도한 결과이건 그렇지 않은 결과이건 간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강기정 “4대강 사업평가 부실...영산강 녹조 조사도 안해”

국무총리실이 21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4대강 사업평가에서 영산강 녹조현상에 대한 현장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부실조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부위 소속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이 7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79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4대강사업 조사작업단’을 발족하고 9월말 현재까지 총 228회의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평가 결과는 올해 12월 발표 예정이다.

김 의원은 “치수 분야의 경우 현재까지 단 2번의 조사가 이뤄졌을 뿐이고 4대강 사업의 핵심쟁점 중의 하나였던 독성 남조류에 의한 녹조현상 조

사는 금강 백제보 상류지역에서 단 수준에 확인 및 수질데이터 다운로드 조사를 벌이는 등 조사가 극히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해와 올해 ‘녹조라떼’ 현상이 극심했던 영산강은 현장조사 전 해 이뤄지지 않았다. 4대강 조류문제는 수환경·수생태계의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조류가 가장 심하게 발생한 낙동강조차도 현장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었다.



박혜자 “정부 생활체육 통계 자료 눈속임 의혹”

생활체육 참여율이 떨어지자 박근혜정부가 통계 기준을 바꿔 눈속임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7일 배포한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생활체육 지원액이 참여정부는 5920억원(61.3%)이었으나 이명박정부 들어 9948억원(38.9%), 박근혜정부에서는 5178억원(29.9%)으로 계속 줄어들면서 전문체육 지원 규모와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주 2회 이상,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한 비율’로 규정된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이 지난 2006년 44.1%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34.9%, 2013년 31.4%로 급감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지난 2월 공개한 ‘2013년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결과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생활체육 참여율 기준을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 지난해 참여율을 31.4%가 아닌 45.5%라고 발표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체육정책이 생활체육을 중시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도 모자라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며 “정부는 통계 조작에 대해 사과하고 체육정책을 다시 생활체육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승남 “지역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11곳 위법행위 적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상당수가 각종 위법행위로 적발되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전국적으로 73개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이 지정됐으나 이 가운데 인증업무 위법행위로 1회 이상 적발된 곳이 무려 33개소(45.2%)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4년 연속 적발된 기관도 버젓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도 민간인증기관 19개소 가운데 무려 11곳(57.8%)이 인증업

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처럼 친환경농산물 인증 업무에 위법이 많은 것은 대상 농가가 마음대로 인증기관을 선택하기 때문에 인증기관과 대상농가 사이에 결탁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2년 연속 같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맡을 수 없게 하거나 동일 신청자를 대상으로 3년이 경과해야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쁜사람은 많다 돈 많은 사람도 많다

정신이 맑고 마음이 예쁜사람도 많았으면 좋겠다.

나눔과 배려가 세상을 바꾸듯이

신협이 예금과 대출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비과세 예금 3,000만원 (1인당 예금보장 5,000만원)
- 대출최고한도 28억원 (최저금리 3.8%)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금호지점/중앙지점

하반기 부동산 대전망과 실전투자 전략세미나

99% 적중률 최고의 부동산 실전전문가 김영표 대표가 말하는 소액으로 선택할 수 있는 월세나오는 부동산을 찾아서...
종자돈 3천~1억으로 부동산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장소	NC백화점(구.현대) (10층 문화센터)
일시	2014. 10. 8. (수) 2시 / 7시 선택
문의전화	062)383-1330 (사전 예약)

강/의/내/용

- ① 하반기 및 2015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 및 투자전략 대공개
- ② 한국 주택시장의 미래 분석과 전망
- ③ 광주·전남지역 부동산 흐름 및 투자시장 투자 전략 공개
- ④ 토지 대전망-토지 가치변화에 따른 개발지역 투자 포인트 해법공개
- ⑤ 3천~1억의 소액투자도 월세 받을수 있는 투자지역 매물 추천

김영표 부동산 실전투자 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방송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칼럼게재중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 검색

제5회 자동이체 행운이벤트

이사항 안동경 전무 하연준

5,000만원 경품 1,479분께 드리는 특급 이벤트!!

- 신청기간 • 2014년 10월 24일까지
- 응모대상 • 행사기간내 자동이체 3건이상 신청, 기존 유지 고객
- 응모권교부조건 • 자동이체 3건당 1매 교부

경품 추첨일 2014년 10월 26일(일) 오후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1등	50인치 벽걸이 TV	3명
2등	드럼세탁기	3명
3등	제습기	9명
4등	쿠쿠압력밥솥	12명
5등	자전거	12명
6등	생활용품세트(대)	90명
7등	생활용품세트(중)	150명
8등	아차상	1200명

※ 동급 사은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등까지는 참석본인에 한하여 경품지급합니다. ※ 중복당첨시 상위 상품으로만 지급합니다. ※ 경품행사는 응모한 회원에 한하여 추첨합니다.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671-5000 KBC광주방송국 앞
양림지점 652-9203 기독교병원 아래
월산지점 364-7557 대성초교 사거리